

돼지출하제도와 도축업무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농수산부는 최근 돼지출하증가와 더불어 도매시장에서의 장기계류로 인한 출하농가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계획출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일 농수산부 가공이용과에서 대한양돈협회장, 서울시 농축과장, 축협담당부장, 서울공판장장, 우성농역, 협진식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돼지출하제도 및 도축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회가 제출한 “돈육출하량 배정제 계획(안)”을 검토하였다.

본회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 출하처별 1일 평균 출하동향이 지난 3월보다 무려 85%나 증가하였으며, 서울 3개도매시장의 출하돼지에 관한 차량 계류상황이 2~3일로 3,500여두나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따른 도시환경 및 수질공해와 시민보건위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출하자들의 경비가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본회는 돈육출하량 배정제를 실시토록 건의하고 그 방안으로서 각 도축장과 양돈업자에 대한 출하실적 및 생산계획서 등의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출하 배정권자와 관할당국에서 그 상황을 집계도록 하고 행정당국은 출하배정권자인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시달하고 출하배정권자는 자료에 의거 공정하게 출하량과 출하일정을 배정토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 배정요령은 배정권자인 축협 및 농협이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1일 총 출하량의 30%를 배정하고 양돈경영안정추진 지역위원회는 전기업양돈장을 대상으로 1일 총 출하량의 40%, 도축장은 일반출하현상을 대상으로 30%의 물량을 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기타 배정제 추진단계와 도매시장별 배정량 그리고 배정순위에 관한 자료도 같이 제출되었다.

축산정보

상기협의회에서 본회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기업 배정량이 너무 많다고 축협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본회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돈출하량배정제 계획(안)을 수립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돼지값 금년 초보다 절반값으로 하락

돼지의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금년 초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사료값이 뛰면서 사료원가가 많이들고 산지축산 농가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안보기 위해 새끼돼지를 마구 내어 팔기 때문인 것 같다. 종전 90kg이 되어야 팔던 것을 70~80kg이면 내다파는데다 그나마 대부분 자돈으로 더욱더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83년도로 돼지의 사육두수가 400만 마리가 넘은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돈 콜레라 발생 중소규모 많아

지난 10월 1개월동안 623두의 돼지에 돈콜레라가 발생, 189두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28일 안양가축연구소에서 가축위생연구담당관들을 비롯 관련단체 - 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서 보고된것으로 각지역별 발병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지역으로 모두 177두가 발병, 29두가 폐사했으며 다음으로는 전남지역으로 104두가 발병, 39두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에서는 규모별 돈콜레라 발생율은 대규모보다 중소규모이상이 많은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에서는 돈콜레라예방약 공급현황도 발표했는데 공급현상에 따르면 올해 생산 1천 4백만두분과 이월 2백만두분을 합해 모두 1천 6백두분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1천 4백만두분을 공급하며 나머지 2백만두분은 내년으로 이월키로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해 백신공급량은 모두 9백54만두분에 불과 올해 백신공급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돼지 대장균성 설사백신개발

돼지의 대장균성설사로 인해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요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보아 농가에 보급케 됐다. 11월19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새끼돼지의 설사증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함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의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개발사업에 착수 양돈농가에 대량으로 생산 내년초부터 보급케 됐다. 연구팀에 의하면 새끼돼지의 대장균성 설사증으로 인해 젖떼기 새끼돼지의 40~50%의 손실을 가져오던 것을 이번에 백신을 개발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게 되었다.

백신의효과로는 야외실증시험결과 젤(gel)백신의 경우 생후 1주에는 대장균성 설사증을 막는 효과가 65% 2주에 58%였으며 위생백신의 경우는 생후 1주에 76% 2주에 63%로서 유성백신이 젤백신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히고 이 백신을 임신한 모돈에 접종하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을때 약20%이던 것을 약 5~7% 피해를 줄일수 있는 우수백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연구팀은 임신 모돈에 분만 5~6주전과 2주전에 동백신을

축산정보

천저히 접종토록 농가에 당부했다.

침뜸으로 65% 치료

자유중국은 침뜸을 이용한 씨암퇘지의 번식장애 치료 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씨암 돼지가 젖을 뱀후 임신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사료소비를 줄이고 농민들의 양돈 효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자유중국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의 협조로 대만대학 축산과 임인수교수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 실험은 번식장애를 입은 어미돼지의 백회와 미근등 두군데의 혈에 10~15분간 침뜸을 하여 시술후 14일 이내에 발정, 교배할 수 있게 한것, 성공율은 약65%였다.

두군데 모두 짚기가 쉬운 혈이고 시술도 간편하여 농민들도 약간의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제15차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개최

지난 12월 6 일(금) 14 : 00 안양가축위생연 구소 회의실에서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15차 가축질 병예찰협의회에서 '83년 가축질병예찰사업 결 과평가, 전염병 발생보고 강화방안, 겨울철 가 축질병 방제 대책, 도입우질병예방(농민교육) 왜 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예방(예방접종 홍보), 기타 협약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모돈수매 배축 비축 (농수산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양돈이
사육두수의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농수산부에서는 양돈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자 돼지생산조절을 위한 모돈감축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농가에서도 양돈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번식 활용 모돈의 출하를 늘리고 있는 바, 출하되는 모돈이 유통과정에서 원활하게 소비되므로써 현재의 양돈불황을 타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육류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사업이 견실하게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육가공업체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육가공업체에 당부했다.

서울시 육류가격표시 게시

서울시에서는 연동가격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돼지고기 연동 가격표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심의, 기타 필요 사항을 위원회의 임무로 정하고 서울시 축산기업조합과 각 구청을 통하여 잘 보이는 곳에 육류의 가격표시를 게시토록 한다고 한다.

연동가격표 심의위원회

소속 및 직위	성명	기능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강 병 수	위원장(당연직)
" 농축과장	유 천 수	수석위원 (위원장율고시대행)
생산자 측 서울경기양돈협동조합장	심 재 양	위원장
서울특별시축산업협동조합장	유 지 만	위원장
소비자 측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간사	양 원 자	위원장
기타 서울특별시 기업조합장	최 맹 저	위원장
대한요식업중앙회장	김 동 하	위원장
간사 농축과 축산계장	박 용 하	

돼지계열화 생산사업 추진

농수산부는 우리나라 양돈생산구조가 99% 이상이 부업규모(100두미만)로 양돈을 영위하고 있는바, 양돈의 전기업화 추세에 따라 부업양돈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합영농을 주축으로한 적정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하고자 돼지의 계열화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함과 아울러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계열생산을 착수도록 조치하였다.

또 각도와 각협회에서도 동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주도록 당부하고, 돼지의 계열화생산이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육가공공장, 사료공장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양돈장에서도 영세 양돈농가와 연계, 돼지를 계열화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줄것을 각도와 본회에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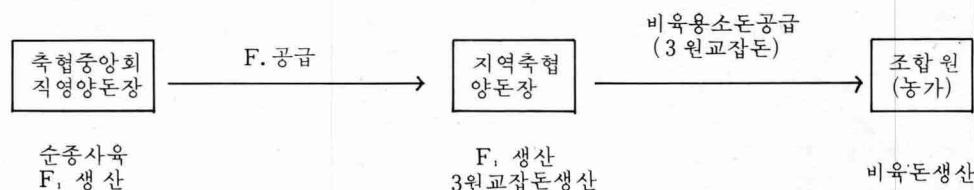
계열화생산사업추진방안

1. 목적

- 가. 부업농가의 보호육성과 소득증대로 부업 농과 전기업농과의 상호마찰을 극소화한다.
- 나.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절기능 강화로 계획생산에 의한 pig cycle을 극소화 한다.
- 다. 일반농가의 3원교집돈 생산의 초기정책으로 육가공품 수요 급증에 대처하여 육질을 개선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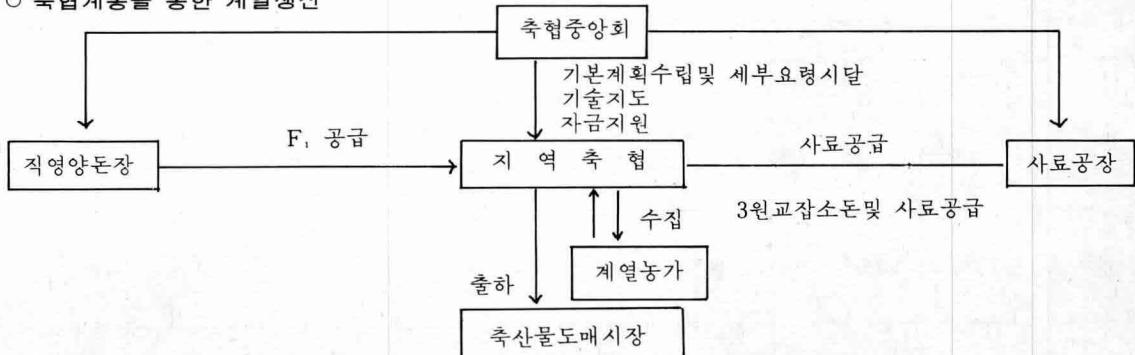
2. 추진방향

- 가. 축협계통을 통한 계열화생산사업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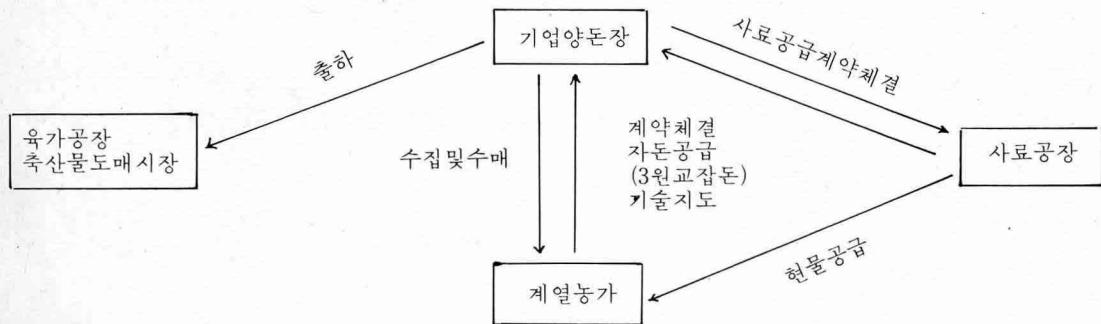


- 나. 민간기업 양돈장을 통한 계열화 생산유도 기업양돈가(1,000두 이상)로서 육가공장, 축산물유통시설 또는 비축시설 보유자에게 우선권장한다.

○ 축협계통을 통한 계열생산



○ 민간기업 양돈장을 통한 계열생산



3. 세부추진계획

축협계통 계열화 생산

가. 3 원교합돈 생산공급 체계 구축

- 1) 축협직영양돈장은 순종을 사육하여 F₁을 생산하고 지역축협에 F₁모돈(母豚)과 종모돈(種牡豚)을 생산 공급한다.
- 2) 지역축협양돈장은 F₁돈을 사육하고 3 원교합돈을 생산하여 비육용자돈을 계열농가에 공급한다.

지역축협양돈장은 자체 돈사시설, 자돈구입, 사료 및 인건비 등과 회원농가 공급용 자돈대, 사료대 등 운영자금 일부를 축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융자지원 받는다. (1개소당 지원액 324백

만원, '91년까지 총 27,533백만원)

1986년까지 각도당 2개소씩 지역축협 양돈장을 (전국 16개소) 시범추진한다.

1991년까지 전국 85개 지역축협이 참가하여 계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도당 10개소)

3) 양돈장 사육규모

○ 지역축협 양돈장

(단위 : 두)

단계별	구분	보유			생산 및 농가분양	1회 농가분양
		♀	♂	계		
1단계 (1984~1987)	F ₁ 돈 (1개소당)	2,400 (150)	256 (16)	2,656 (166)	36,000 (2,250)	12,000 (750)
2단계 (1988~1991)	F ₁ 돈사육 화대	4,800 (150)	512 (16)	5,312 (166)	72,000 (2,250)	24,000 (750)

○ 축협직영 양돈장

단계별	구분	보유			생산			조합분양			후보돈 확보 또는 자체비육		
		♀	♂	계	♀	♂	계	♀	♂	계	♀	♂	계
1단계 (1983~1986)	순종생산용 종돈	73	9	82	532	533	1,065				265	30	295
	F ₁ 생산용 종돈	720	80	800	5,280	5,280	10,560	2,400	256	2,656	3,147	5,527	8,674
2단계 (1987~1990)	F ₁ 생산용 종돈사육 화대	1,440	160	1,600	10,560	10,560	21,120	4,800	512	5,312	6,294	11,054	17,348

나. 계열생산농가조성계획

사업내용	년도별 1984	'85	'86	'87	'88	'89	'90	'91
지역축협조성	5개소	5	6	11	10	17	21	10
농가조성	-	125호	400	667	934	1,600	2,133	1,867
비육돈생산(년간)	-	11,250두	36,000	60,000	84,000	114,000	168,000	192,000

*84년부터 지역축협에 F, 돈 및 종모돈(種牡豚)을 분양하여 85년부터 비육돈을 생산케 한다.

- 농가당 사육규모 - 비육돈 1회 30두 사육
(년 3회전 90두 생산)

- 계약농가의 가격요건

- 1) 1회 30두(15평)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시설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자
- 2) 성실하고 양돈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자
- 3) 축협회원 농가로서 지역축협의 조합장이 선정하는자

다. 계열화 생산방법

1) 농가와의 계약

- 자돈, 사료의 공급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 자돈분양 : 25kg (생후 80일령)
 - 농가사육 : 25kg → 90kg (100일간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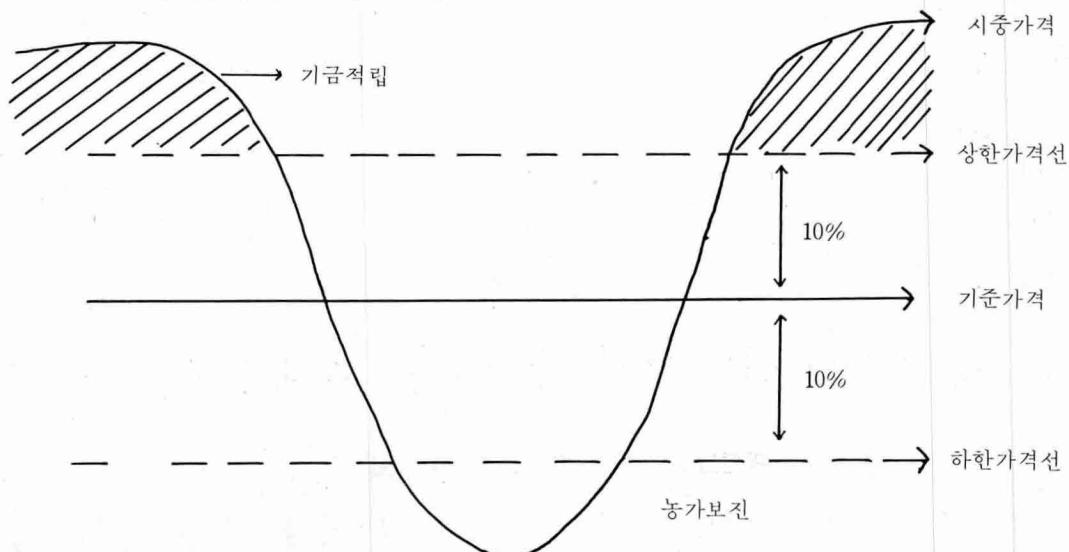
○ 기준가격의 설정

- 축협중앙회장은 돼지 90kg 당 생산비와 유

통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양돈농가대표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함

- 기준가격은 매년 1회 결정하고 사료비 등 생산비의 대종을 점유하는 비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10% 범위에서 상하한 가격을 정하여 운용함
- 2) 가격보장제 운영

- 당일출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때 차액은 기금으로 적립
- 당일출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은 적립된 기금에서 농가에 보전



단, 시중가격은 유동적이므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상하 10%수준의 안정대를 설정하여 운용

* 1983년 9월 현재 돈가기준 농가소득 추정 (두당) (예)

- 기준가격 : 105,000원 / 90kg

- 농가소득 = 12150원 / 90kg

기준가격 - (자돈대 + 사료대 + 약품대 + 감
105,000원 40,000원 44,700원 770원
가상각비 + 자가노력비 + 금리 + 유통비용 +
1,580원 8,820원 3,330원, 4,000원
기타)
1,800원

(민간기업 양돈장의 계열화 생산)

가. 계열화 생산규모 및 계약조건

(1) 농가사육규모

○ 3원교접 돈 자돈 1회 50 - 100두 입식

(2) 계약조건

○ 자돈 및 사료공급

- 공급(판매) 자돈의 일령 및 체중

• 일령 : 생후 80 - 90일령

• 체중 : 25 - 30kg

* 자돈판매 시의 가격은 축협계열화 생산 농가 공급 가격을 준용

○ 연간입식두수 : 150 ~ 300두 (3회전)

- 비육출하시 까지의 소요사료 알선공급

○ 계약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철저

○ 생산육돈은 기업양돈장에서 전량 수매처리

○ 육돈 수매시 적정 생산비 이상보장(기비대 미
감안)

* 기업양돈과 계약농가와의 기본계약서는 사
전에 관할 도지사와 협의

나. 계열화 생산농가 조성 유도

○ 1,000두 이상의 기준 기업양돈장

- 육가공장, 사료공장, 축산물유통 시설
또는 비축시설중 1개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우선권장

축협중앙회은행업무개시

축협중앙회(회장 : 이득용)는 지난 12월부
터 은행업무를 개시했다.

축산자금의 자체조성과 조달을 위해 축협
이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은행업무는 우선 12
월 1일 서울 여의도의 축협중앙회 영업부에
서 개시하고 6월부터는 서울 강동구의 성내

동지소에서 시작했다.

취급업무는 외환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
로써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정
기예금적금, 상호부금, 당좌 별단과 각종 대
출업무가 포함된다.

분수지킨 연말연시 희망에 찬 새해살림

— 대한양돈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 —